

# HANARO

ETF  
Monthly

September. 2025

# Contents

---

## 01. HANARO Insight

국제 패권 속, 미국 원자력 그리고 팀 코리아

## 02. 9월 추천상품

HANARO 원자력iSelect

## 03. HANARO ETF 수익률 TOP5

## 04. HANARO ETF League Table

국제 패권 속, 미국 원자력 그리고 팀 코리아

25년 상반기  
자본시장 리뷰

여전히 유효한  
인공지능 모멘텀  
그리고, SMR

25년 상반기 트럼프 관세 정책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빠른 회복세를 보인 글로벌 증시는, 미국증시를 중심으로 전고점을 상회하는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미국 기술주(M7)로 대표되는 주요 기술주의 높은 실적과 AI 발전에 따른 기대감이 주된 동력이었습니다. **경기의 불확실성 확대 국면에서도 AI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성장주'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과 프리미엄이 지속된 것이 특징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M7)'을 비롯한 주요 기술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적 지출(CAPEX)을 단행하였는데 일각에서 제기되던 'AI 인프라 과잉 투자' 논란을 무색하게 만드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경제 혁신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서 **AI의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AI 투자 열풍은 기술 분야를 넘어 에너지 인프라까지 확산되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량이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발전 및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촉진되었으며, **이 가운데 원자력과 SMR이 새로운 해결책으로 부상한 것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이슈입니다**

빅테크와 SMR

2025년 상반기 주요 빅테크 회사들과 원자력 기업들 간의 업무 협력은 시장의 이목을 이끌었습니다. 일찍이 엔비디아의 Jensen Huang은 “원전없이 AI 못한다”라는 말과 함께 AI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글(알파벳)은 **Kairos Power(SMR)와 2030년 전후 첫 가동 목표로 약 500MW 규모(다수 SMR)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X-energy에 5억달러를 투자를 투자하고, 워싱턴주에 4기(320MW)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원자력 투자 계획

| 빅테크 업체    | 협력업체                         | 협력내용                                          |
|-----------|------------------------------|-----------------------------------------------|
| Google    | Kairos Power                 | 프로그램 최대 500MW (1차 50MW, '30 가동 목표)            |
| AWS       | X-energy<br>Energy Northwest | 1단계 320MW → 옵션 최대 960MW(워싱턴) + 장기 누적 5GW('39) |
|           | Talen Energy                 | 최대 1,920MW PPA                                |
| Microsoft | Constellation                | 835MW, 20년 PPA                                |
| Meta      | 다수 개발사 대상 'RFP'              | 1-4GW 신규 원전 조달 목표('30년대 초).                   |

출처 : 언론사 종합, NH-Amundi 자산운용

빅테크 설립자들의  
원자력 사랑

또한, 미국의 저명한 테크 경영자들도 **SMR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게이츠**는 현재, SMR 주요 스타트업 테라파워의 설립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문 때, 이재명 대통령과의 담화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원자력 산업의 장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팔란티어의 창업주 피터틸**은 자신의 벤처회사를 통해 5000만 달러의 자금을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농축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국제 패권 속, 미국 원자력 그리고 팀 코리아

### 빅테크 설립자들의 원자력 사랑

빌 게이츠 "AI에 소형 원전이 해법"...李 "한국 정부, 차세대 원전 관심 많아"

빌 게이츠 曰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소형 모듈 원자로가 효과적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曰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전 건설에 관심이 많고, SMR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 며 "세계 시장에서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25.08.21)



### 피터 툴이 묻는다 "AI 강국, 말로만 외칠 건가"

피터 툴(팔란티어 창업자) 曰 "탄소 없는 세상을 말로만 외칠 것인가, 진짜 만들 것인가? 답은 분명하다.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싶다면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다"

"미국이 1960년대 진행하려 했던 100기 넘는 원자로 건설을 취소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미국은 이미 탄소 제로를 이뤘을 것이다. 이제라도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출처: 조선일보 (25.06.13)

### SMR 정책적 모멘텀

원자력 시장의 성장은 **정책 드라이브 통해 강하게 지지되고 있습니다**. SMR 기술의 효율성과 안정성, 그리고 친환경성 등 여러 기술적 혁신을 고려해보면, 당 기술은 미국 국회의 여야의 정치적 의견을 아우를 수 있는 합치점 속 기술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원자력 기술이 당쟁의 논의 속에서 소모되는 것과 달리, **SMR 관련 법률의 입법은 마찰 없는 합의에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SMR 기술의 주요 특징

- ① 안정성: 소형화, 피동형으로 사고 발생위험을 낮춤
- ② 운영 탄력성: 확장 가능(Scalable), 부하추종운전 가능
- ③ 건설리스크: 공장 작업의 비중이 높아 건설비 리스크 낮음
- ④ 부지 위치: 오지나 사막 설치가 가능
- ⑤ 응용: 발전, 수소생산, 정유, 선박 추진 등 다각화

#### 공화당

- 원자력 패권유지 및 대중 우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산업 중요성 부각
- 기간 산업으로서 발전산업 및 중공업에 우호적

#### 민주당

- 신뢰성 검증을 통한 안정성 확보
- 저탄소 에너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새로운 모듈
- 빅테크 친화적 정책

출처: 에너지 경제 연구원, PwC, NH-Amundi 자산운용

### SMR 관련 법률 주요 타임라인 (1)

#### (1) 바이든 행정부

[2024.03] 미국은 「2024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에 서명하며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IJIA)」의 미집행 예산의 일부를 3+세대 SMR의 상업적 배치와 설계, 인허가, 공급업체 확보, 부지 조성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승인

출처: 한국원자력연구원 - 2025년 미국의 선진원자로 개발현황과 제도적 지원 동향 (2025.04.17), NH-Amundi 자산운용 편집

SMR  
정책적 모멘텀

SMR 관련 법률 주요 타임라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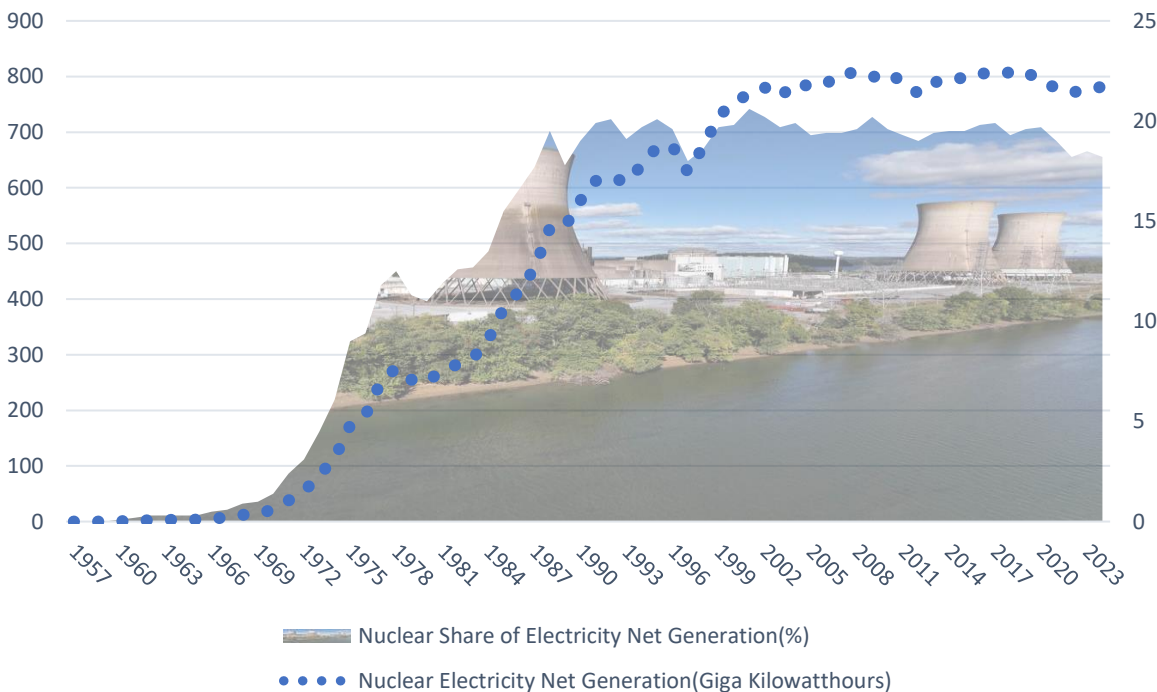
- [2024.11] 바이든 前 행정부는 2050년까지 200 GW 용량의 신규 원전 배치 등 미국 내 원자력 용량 확대를 위한 정부의 미래 조치를 포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원자력 확대 정책을 마무리
- (2) 트럼프 행정부
- [2025.03] DOE는 3+세대 SMR 기술의 자국 내 초기 배치를 촉진하기 위해 1단계 First Mover Team Support(8억 달러) 및 2단계 Fast Follower Deployment Support(1억 달러) 등 최대 9억 달러 지원을 위한 모집 공고를 재발행
- [2025.04] DOE는 2025년 4월에 5개 원자로 개발사에 대해 HALEU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조건부 지원 계획을 발표
- [2025.06]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원자력 에너지 르네상스'의 개막을 목표로 하는 4건의 원자력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 NRC의 인허가 지연, 핵연료 공급 불확실성 등 구조적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조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명시

출처: 한국원자력연구원 - 2025년 미국의 선진원자로 개발현황과 제도적 지원 동향 (2025.04.17), NH-Amundi 자산운용 편집

전략자원으로서  
원자력

미국의 대 유럽 원자력 수출의 과정 중, 현재 웨스팅 하우스의 유럽 대형원전의 수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의 전략적 성격에 기인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권과 동구권은 각자의 벨류 체인을 구축하며,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2010년대까지 서구권 일부 국가는 환경 운동과 정치적 합의(반핵 여론, 탈 탄소·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원자력 비중을 축소했으며, 미국 역시 신규 원전 건설 속도가 늦춰져 발전 비중이 정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Nuclear Electricity in USA



출처: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2025), NH-Amundi 자산운용

국제 패권 속, 미국 원자력 그리고 팀 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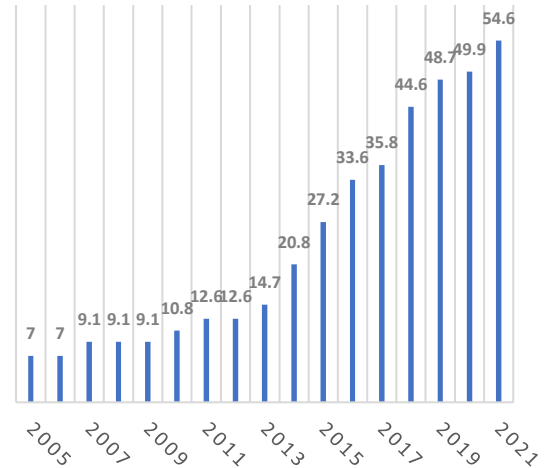
전략자원으로서  
원자력

그러나 중국의 원전 굴기와 러시아의 원전 패키지 외교,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원자력은 단순한 발전원을 넘어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이자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중국 내 신규 원전 설립 계획 및 원자력 발전 확대 방향



NUCLEAR POWER CAPACITY IN CHINA(GW)



출처: World Nuclear Association(2022), NH-Amundi 자산운용

이러한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 이후 미국 정계는 점진적으로 **패권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트럼프 1기 적극적인 중국 배타주의와 미국 우선주의의 강조는 주요 산업 밸류체인에 대한 '미국화' 방향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 당시, '원자력 르네상스' 구호가 있었으나, 준비되지 않은 행정부와 원자력 산업의 밸류체인은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등장함에 따라, 원자력에 대한 시각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리쇼어링 기조와 미국 우선주의 속에서 **원자력 산업은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 행정명령은 단순 SMR 산업의 영역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형 원전의 밸류체인의 회복**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 건설 기술 **밸류체인**에는 **핵연료 주기(농축·재처리)**, **플루토늄 전환**, **고농축 우라늄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군사적 핵무기 프로그램과 긴밀히 연결된 이중용도 기술로 평가됩니다.

즉, 동유럽 원자력 벨트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 원전 수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해외 수출을 통해, **주요 원자력 밸류체인을 유지**하는 것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미국 중대형 원자력 회사인 웨스팅하우스의 체코수주는 전략적 중요도가 컸습니다**. 또한, 원전을 통해 미국 안보자산의 확보를 꾀했던 체코에게도 웨스팅 하우스를 선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시장 내 지배적인 상황이었습니

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학적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체코는 **최종적으로 한수원을 채택**하게 됩니다.

## 국제 패권 속, 미국 원자력 그리고 팀 코리아

## 미국 중대형 원자력의 전략적 가치

앞서 이야기한대로, 미국 원자력 산업의 방향성은 수출과 신규 수요 대응이란 두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 대형원전(AP-1000 등)을 중심으로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중심의 수출과 (2) 첨단 원자력 건설(SMR, MMR 등) 건설을 통한 신규 에너지 공급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원자력 산업의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 미국의 원자력 관련 투트랙 전략

## I. SMR, MMR 등 첨단 원자력 산업 기반의 밸류체인 구축

- 빅테크, EV, 히트펌프 등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적 원자력 밸류체인
- 대수 및 소규모 원자력이 필요한 국가를 위주로 수출(스웨덴, 루마니아 등)

## II. 대형 원자력 밸류체인(AP- 1000 등)

- 중대형 원자력의 전략적 가치 및 대형 수주를 기반으로 밸류체인을 구축
- 체코, 폴란드 등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원하는 국가 위주로 수출하는 전략

출처: NH-Amundi 자산운용

2024년 체코가 APR-1400(한국형 대형 PWR)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동유럽 국가들은 원전의 전략적 가치보다 경제성과 EPC 신뢰성을 우선시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면, 유럽 내 원자력 벨트의 주도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원전은 단순한 전력 공급원이 아니라 대러(對러)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 러시아의 원전 분포



출처: World Nuclear Association(2025), NH-Amundi 자산운용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수원과 웨스팅 하우스와 맺은 합의문 안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유럽 원전 건설에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겠다는 조항이 추가 되어있습니다. 이는, '미국은 동유럽 원전건설을 통한 대러 전략의 효과적인 구축을 포기할 수 없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제 패권 속, 미국 원자력 그리고 팀 코리아

팀 코리아의  
탁월한 프로젝트  
수행능력

하지만, 체코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잠재적 고객들은 웨스팅 하우스의 실제 건설 및 수주 능력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에선 미국 또한 수출을 통한 전략적 밸류 체인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EPC사업의 한계

| 년도   | 웨스팅 하우스 EPC 산업 관련 상세 내역                                   |
|------|-----------------------------------------------------------|
| 1979 | 스미마일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 산업 축소 - 밸류체인 축소의 시작                |
| 1995 | CBS 인수 이후, 엔터 사업 비즈니스 확장                                  |
| 2006 | 도시바 피인수                                                   |
| 2011 | 후쿠시마 원자력 멜트다운 사건 발생                                       |
| 2017 |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를 캐나다 업체에 매각 - (원자력 EPC 사업 진행 중 63억 달러의 손해 발생) |

출처: 언론사 종합, NH-Amundi 자산운용

이러한 의미에서 **한수원과 웨스팅 하우스의 JV(Joint Venture)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JV가 설립되면, 미국은 동유럽 원자력 벨트를 유지하고, 한국은 EPC 수주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동유럽은 원전 시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전 수출경쟁력의 SWOT 분석

| Strengths                         | Weakness                     |
|-----------------------------------|------------------------------|
| 뛰어난 기술력, 설계부터 건설,운영 가능한 종합 역량     | 한정된 조달 역량, 핵연료·방사성 폐기물 관리 부족 |
| 낮은 가격 경쟁력 (UAE 수주 사례), 정부의 적극적 지원 | 미국 등과 기술적으로 완전 독립하지 못함       |
| Opportunities                     | Threats                      |
| 프랑스 및 미국 원전 사업 지연으로 인한 틈새 시장      | 경쟁국의 기업 통합 및 대형화 추세          |
| 금융 제약 있는 국가(예: 폴란드)의 호의적인 구조 수요   | 미국의 기술 통제 및 국제 영향력           |

출처: Partnership Strategy for S. Korea's Next NPP Export - 최보라 - 한전공대 (2022), NH-Amundi 자산운용

JV 설립 시, 세 국가의 편익분석

| 미국                                 | 동유럽 국가                                | 대한민국                        |
|------------------------------------|---------------------------------------|-----------------------------|
| 1) 대형 원자력 건설소 수주를 통한 원자력 글로벌 패권 유지 | 1) 미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가능 | 1) 지적재산권 분쟁 해소 가능           |
| 2) 전략적 위치 내 원전건설을 통한 러시아 견제 가능     | 2) 러시아 에너지 독립                         | 2)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금융조달 역량 확대 |
|                                    | 3)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수주 가능                  |                             |

출처: NH-Amundi 자산운용

원자력 산업의 전략자산으로서 가치에 주목한다면, 향후 도래할 원자력 시대에 국내 원전 기업들의 글로벌 위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특히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국전력(015760 KS)의 글로벌 진출 모멘텀**은 주목할 만 합니다.

국내 원자력 기업의 글로벌 진출 스토리는 앞으로 놓쳐서 안될 투자 테마가 될 것입니다.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원전 플레이어로 성장하는 기회에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 HANARO 원자력iSelect (443730)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한국 원자력산업에 집중 투자

## 투자포인트

AI발달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원전 수요 확대

저탄소 에너지원 및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원자력 발전의 장점 부각

미국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용량 4배 확대 등 주요 국가의 원전 확대 정책 가시화

## 편입종목

| 상위 10 종목 |          |       |                                       |
|----------|----------|-------|---------------------------------------|
| NO       | 종목명      | 비중(%) | 특징                                    |
| 1        | 한국전력     | 18.24 | 국내 전력 독점 공급자로 송배전과 전력계통 운영 담당         |
| 2        | HD현대일렉트릭 | 14.65 | 중저압 전력기기, 스마트그리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전기 기업     |
| 3        | 두산에너지빌리티 | 14.29 | 발전설비·원전·SMR 중심의 에너지 인프라 전문 기업         |
| 4        | 효성중공업    | 12.96 | 변압기·차단기 등 전력기기 및 수소충전소 관련 사업 전개       |
| 5        | 현대건설     | 9.93  | 국내외 플랜트·인프라·주택사업을 아우르는 종합 건설사         |
| 6        | LS일렉트릭   | 9.42  | 전력기기·자동차 솔루션 기반 산업용 전력설비 전문업체         |
| 7        | 한전기술     | 3.66  | 원자력·발전 플랜트 설계·감리 수행하는 한전 계열 전문 기술사    |
| 8        | 산일전기     | 2.92  | 변압기·개폐기 등 수배전반 제조 및 산업현장 설비 납품 기업     |
| 9        | 한전KPS    | 2.38  | 발전소 설비 정비 전문 기업으로 국내외 발전소 유지보수 수행     |
| 10       | 비에이치아이   | 2.31  | 전력회사, 발전사업자, 대형건설사용 발전 설비를 전문으로 설계·생산 |

기준일 25.08.28, 한국펀드파트너스

## 수익률

| 수익률(%) |       |       |        |        |        |
|--------|-------|-------|--------|--------|--------|
| 1M     | 3M    | 6M    | 1Y     | YTD    | 설정이후   |
| -2.16  | 37.87 | 82.67 | 109.05 | 106.56 | 247.64 |

기준일 25.08.28, 신한아이타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기본정보

|       |                           |       |       |       |  |
|-------|---------------------------|-------|-------|-------|--|
| 종목명   | HANARO 원자력iSelect         |       |       |       |  |
| 종목코드  | 443730                    |       |       |       |  |
| 상장일   | 2022.06.28                |       |       |       |  |
| 상품유형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       |       |       |  |
| 비교지수  | 기초지수: iSelect 원자력지수       |       |       |       |  |
| 설정단위  | 1CU 당 50,000좌             |       |       |       |  |
| 수탁/사무 | 하나은행, 한국펀드파트너스            |       |       |       |  |
| 총보수   | 운용                        | 지정참가  | 수탁    | 사무    |  |
| 0.45% | 0.36%                     | 0.05% | 0.02% | 0.02% |  |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5. 08. 28

| ETF명                                                  | 투자포인트                                                                                                                                                                                                         |
|-------------------------------------------------------|---------------------------------------------------------------------------------------------------------------------------------------------------------------------------------------------------------------|
| <b>HANARO<br/>원자력iSelect</b><br><b>3M 수익률 +37.81%</b> | 종목코드: 434730<br>규모: 3,695억<br>상장일: 2022-0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발달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 원전 수요 확대</li> <li>• 저탄소 에너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li> <li>• 체코 원전 수주로 입증된 원전 팀 코리아의 경쟁력</li> </ul>   |
| <b>HANARO<br/>CAPEX설비투자</b><br><b>3M 수익률 +35.94%</b>  | 종목코드: 454320<br>규모: 733억<br>상장일: 2023.0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에너지 및 제조업 투자 확대 추세</li> <li>• CAPEX 설비투자 확대 섹터 집중 투자</li> <li>• 5개 세부테마(전력&amp;건축설비, 공장기계, 풍력, 원자력)</li> </ul>       |
| <b>HANARO<br/>전력설비투자</b><br><b>3M 수익률 +35.13%</b>     | 종목코드: 491820<br>규모: 309억<br>상장일: 2024-09-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투자 및 전력망 투자 확대 진행 중</li> <li>• 전력산업 초호황기 사이클</li> <li>• 변압기, 전선, 커패시터 등의 대표기업에 투자</li> </ul>                 |
| <b>HANARO<br/>Fn조선해운</b><br><b>3M 수익률 +29.45%</b>     | 종목코드: 441540<br>규모: 1,179억<br>상장일: 2022-0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중 분쟁 수해와 국내 조선사들의 미국시장 진출</li> <li>• 천연가스의 개발 활성화 및 수출 증가 기대감 상승</li> <li>• 미국 함정의 MRO(유지보수, 정비) 산업 본격 진출</li> </ul> |
| <b>HANARO<br/>K-반도체</b><br><b>3M 수익률 +24.74 %</b>     | 종목코드: 395270<br>규모: 2,545억<br>상장일: 2021-0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기술의 발전으로 고성능 연산용 반도체의 수요 급증</li> <li>• 메모리 가격 반등 예측과 해당 산업 업황 개선 기대</li> <li>• 국내 반도체 업체에 투자</li> </ul>             |

■ 자료: NH-Amundi자산운용, 신한아이타스, (레버리지, 인버스 제외)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HANARO ETF League Table

기준일: 2025. 08. 28

| 구분       | ETF 명칭                       | 순자산총액<br>(억원) | 성과     |        |        |         |
|----------|------------------------------|---------------|--------|--------|--------|---------|
|          |                              |               | 1M     | 3M     | 6M     | 1Y      |
| 시장<br>대표 | HANARO 200                   | 3,829         | -0.18% | 21.56% | 30.55% | 21.09%  |
|          | HANARO KRX300                | 80            | -0.17% | 20.96% | 28.23% | 19.45%  |
|          | HANARO 코스닥150                | 161           | -1.15% | 13.03% | 5.91%  | 4.43%   |
|          | HANARO 200TR                 | 1,128         | -0.17% | 21.52% | 30.47% | 21.00%  |
|          | HANARO MSCI Korea TR         | 434           | -0.12% | 22.34% | 28.07% | 15.51%  |
|          | HANARO 200 TOP10             | 136           | -0.85% | 18.42% | 16.24% | 8.98%   |
|          | HANARO 미국S&P500              | 118           | 1.91%  | 10.45% | 5.18%  | 19.87%  |
| 채권       | HANARO KAP초장기국고채             | 37            | 0.15%  | -1.85% | -1.75% | 4.99%   |
|          | HANARO 32-10 국고채액티브          | 351           | 0.29%  | -0.42% | 0.30%  | 4.92%   |
|          | HANARO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 1094          | 0.15%  | -0.28% | 0.43%  | 4.51%   |
|          | HANARO 머니마켓액티브               | 757           | 0.24%  | 0.72%  | 1.48%  | 3.38%   |
|          | HANARO 25-12 은행채(AA+이상)액티브   | 1232          | 0.21%  | 0.64%  | 1.45%  | 2.97%   |
|          | HANARO 27-06 회사채(AA-이상)액티브   | 1101          | 0.09%  | 0.09%  | 0.09%  | 0.09%   |
| 테마       | HANARO 농업융복합산업               | 56            | -3.03% | 11.69% | 14.92% | 4.98%   |
|          | HANARO e커머스                  | 530           | -2.13% | 12.53% | 15.87% | 26.78%  |
|          | HANARO K고배당                  | 197           | -0.38% | 18.84% | 31.16% | 33.45%  |
|          | HANARO 글로벌렉셔리S&P(합성)         | 181           | -0.19% | 7.92%  | -1.07% | 14.20%  |
|          | HANARO Fn5G산업                | 83            | 3.93%  | 21.04% | 20.34% | 13.67%  |
|          |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         | 365           | -3.11% | 17.77% | 2.61%  | 1.29%   |
|          |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 94            | -0.44% | 20.14% | 27.69% | 17.86%  |
|          | HANARO Fn전기&수소차              | 166           | -0.87% | 21.97% | 12.65% | 2.43%   |
|          | HANARO Fn친환경에너지              | 67            | -5.16% | 18.31% | 14.69% | -0.19%  |
|          | HANARO Fn K-반도체              | 2,545         | 3.17%  | 24.74% | 24.58% | 10.73%  |
|          | HANARO Fn K-게임               | 123           | -0.60% | 3.78%  | 6.70%  | -1.42%  |
|          | HANARO Fn K-POP&미디어          | 689           | 11.52% | 7.41%  | 13.21% | 59.05%  |
|          | HANARO 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ICE(합성)     | 56            | 1.55%  | 3.73%  | 2.15%  | 0.99%   |
|          | HANARO Fn K-메타버스MZ           | 55            | 3.48%  | 11.35% | 11.69% | 9.82%   |
|          | HANARO 글로벌워터MSCI(합성)         | 92            | 2.16%  | 5.83%  | 8.67%  | 15.53%  |
|          | HANARO 원자력iSelect            | 3,695         | -2.16% | 37.81% | 82.67% | 109.05% |
|          | HANARO Fn K-푸드               | 189           | 2.13%  | 7.44%  | 17.28% | 24.46%  |
|          | HANARO Fn조선해운                | 1,179         | 8.84%  | 29.45% | 57.84% | 120.19% |
|          | HANARO CAPEX설비투자iSelect      | 734           | -1.38% | 35.94% | 58.22% | 78.57%  |
|          | HANARO 글로벌생성형AI액티브           | 326           | -0.31% | 15.63% | 22.17% | 61.39%  |
|          | HANARO 글로벌반도체TOP10 SOLACTIVE | 69            | 3.08%  | 20.71% | 21.86% | 26.94%  |
|          |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              | 121           | 14.41% | 23.65% | 46.00% | 62.87%  |
|          | HANARO 반도체핵심공정주도주            | 51            | 0.95%  | 9.65%  | -0.01% | -17.87% |
|          | HANARO K-뷰티                  | 481           | 3.22%  | 15.54% | 46.69% | 42.72%  |
|          | HANARO 주가치성장코리아액티브           | 102           | -0.57% | 21.77% | 31.57% | 27.03%  |
|          | HANARO 전력설비투자                | 309           | -2.45% | 35.13% | 53.95% | 77.15%  |
|          | HANARO 코리아밸류업                | 274           | -0.23% | 18.89% | 29.86% | 32.20%  |
|          | HANARO 바이오코리아액티브             | 100           | 0.48%  | 12.45% | 14.43% | 26.36%  |
|          | HANARO 글로벌피지컬AI액티브           | 214           | 1.59%  | 12.13% | 33.96% | 33.96%  |
|          | HANARO 유럽방산                  | 90            | -0.22% | -0.51% | -0.51% | -0.51%  |

■ 자료: NH-Amundi자산운용, 신한아이타스,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제외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 유의 사항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집중 투자에 따른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섹터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전체 투자 가능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
| 추적 오차(Tracking Error)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지출 및 추적 대상 지수 구성 종목 변경에 따른 매매 시, 시장 충격, 상/하한가, 거래정지 등에 따른 미체결 등 현실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추적대상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제대로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br>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원화 환산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추적 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
| 원본 손실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될 수 없으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환율 변동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율 변동 위험 제거를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는 외국 통화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에 100% 노출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KRW)와 해당국가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

- 해당 투자 위험은 전체 목록 중 일부를 나열한 것으로 상품 고유 위험 등 자세한 내용은 투자 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에 기재된 투자 인사이트 및 추천 상품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므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 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고지 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ETF거래수수료,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TF의 수익 구조 및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유튜브 등 SNS에서 ETF추천 영상, 추천 글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NH-Amundi자산운용에서 제작하였으며,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 및 유통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NH-Amundi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0888호(2025.09.02~2026.09.01)